

강기정 광주시장

오늘 민선 8기 힘찬 출발

김영록 전남지사

삶의 혁명 그리고 활력

취임식 '시간·상생·변화' 방점
산업·영산강·3대 수당 등 목표

강기정 신임 광주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선 8기 시장 운영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3면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강 시장의 취임식 주제로 '시간, 상생,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취임식은 시민 700여 명, 공직자, 전남도 축하 사절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광주시대 60초 카운트' 영상을 시작으로 사회자 없이 진행됐다.

강 당선인은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에 맞춰 취임 선서를 한다. 이어 취임사를 대신해 '기회와 변화의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 철학, 로드맵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다. 강 시장은 취임식 전 광주 독립운동 기념탑,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현충탑, 4·19탑,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후 전남도 축하 사절단과 함께 기념식수를 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오후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갖고 민선 8기 첫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강 시장의 민선 8기 시장 구상은 '삶의 혁명', '활력'으로 압축된다.

산업이 커져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산강 주변에서 여유를 누리고, 3대 수당으로 가치 존중을 구현하는 도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지방선거 출마 선언 때부터 줄곧 '내 삶을 혁명하는 새로운 광주시대'를 가치로 가치 편향이나 거대 담론으로서 민주주의를 넘어서 가정, 직장, 사회 등 생활 속에서 평등하고 존

중받으며 누리는 삶을 실현하겠다고 외쳐왔다.

강 시장은 "산업이 커져 일자리가 늘고, 영산강이 넓어져 익사이팅해지고, 가사·농민·참여 등 3대 공약까지 수당 특히 가사 수당을 제도화하겠다"며 "함께 경쟁했던 주기환(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힘과도 정례적으로 만나 조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선우 기자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민주영령들에게 헌화·분향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최우선

대한민국 넘어 세계로 날갯짓

전남도가 1일 취임식을 열고 김영록호의 민선 8기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취임식은 앞으로 4년간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도민과 공직자간 소통을 중심에 두고 진행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오후 3시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 다짐과 도민 결집을 기조로 취임식을 연다.

민선 8기 새로운 전남도의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은 도정철학과 전남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각계 각층 도민이 참석하는 단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민선 8기 전남도는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쌓아온 전남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힘차게 연다는 구상이다.

취임식 후에는 광주시 축하사절단(문영훈 행정부시장, 이정삼 군공항 이전사업추진본부장, 최대범 균형발전정책과장) 등과 함께 도청 앞 잔디광장에 기념식수를 식재한다.

취임식 전 첫 일정으로 김 지사는 전남 항일독립운동기념탑, 현충탑, 김대중 동상을 참배한다.

이후 집무실로 돌아와 일자리경제본부, 보건복지국, 농축수산물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 주요 실국의 사업에 대한 결제를 진행한다.

첨단 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 계획, 복지기동대 행복시책 확대, 고품질 쌀 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결제가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사회의 구현을 위해 전남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62조가 담긴 취임 선서문에 서명한다. /김용현 기자

누리호 조선대팀 큐브위성 사출 성공

상태정보 일부 수신...전압 정상

김영록 "연구팀 노력·결실 감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에 실려 궤도에 올라간 성능검증위성에서 조선대 학생팀이 만든 큐브위성(초소형 위성)이 성공적으로 사출(분리)돼 일부 상태 정보를 지상으로 보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조선대팀 큐브위성 'STEP Cube Lab-II'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께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30일 오전 3시 48분께 지상국이 이 큐브위성의 일부 상태정보(비콘신호)를 수신했다고 밝혔다.

큐브위성이 보낸 상태정보에는 위성의 모드,

자세, GPS 상태, 배터리 모드, 배터리 전압 정보가 포함됐다. 이중 배터리 모드와 전압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초 목표했던 20회의 반복 수신 중 2회만 지상국이 신호를 받았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안전한 양방향 교신을 위해서는 자세 안정화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선대 큐브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2019년 개최한 제5회 큐브위성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1년간 백두산 천지 온도 확인 등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누리호에는 조선대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4개 대학이 직접 개발한 위성이 실렸다.

조선대 큐브위성 사출과 신호 수신 성공과

관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조선대 큐브위성의 사출과 신호 수신 성공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큐브위성 제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조선대학교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오현용 교수를 비롯한 참여 연구팀의 노력과 결실에 깊은 감사와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및 민간기업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월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관련기사 19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

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INSIDE NEWS

- ▶광주시, 저소득층 긴급복지 확대 ▶2면
- ▶완도 실종가족 블랙박스 단서되나 ▶7면
-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19면

본사 인사 <7월 1일자>

▲사업·판매국장 김재호(이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민선 8기,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박형준
부산광역시

홍준표
대구광역시

유정복
인천광역시

강기정
광주광역시

이정우
대전광역시

김두겸
울산광역시

최인호
세종특별자치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대홍
충청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원수
경상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